

1999년도 학회상 수상자 소개 및 수상소감

본 학회는 수상규정에 의거하여 1999년도 학회상 수상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지난 4월 10일에 열린 정기총회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수상자들의 공적개요는 다음과 같다.

'99년도 학회상 심사위원회

- ◆ 일 시 : 1999년 4월 1일 15:00
- ◆ 장 소 : 학회 사무실
- ◆ 참 석 : 조호남, 전봉수, 최진택, 이종세, 김상호

공 료 상

1998년 4월 본 학회 10주년 기념 행사로 학회 10년사 및 셀구조론 등 기념 책자를 발간하는 등 본 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음.



이 리 형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

약력 ●

-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일본 동경대학 건축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부총장, 대한건축학회 부회장, 한국콘크리트학회 부회장, 과학기술처/감사원 정책자문위원, 한국전산구조공학회 회장 역임
- 현 한국과학재단지정 초대형 구조시스템 연구센터 소장, 한국공학기술학회 부회장,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

공적 ●

한국전산구조공학회 회장과 한양대학교 연구담당 부총장으로서 건설분야 전산화에 매진함은 물론, 국내외 학술교류 활성화로 전산해석분야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산학 연구 활성화에 의한 학회 기금 확보로 학회 정상화에 노력하고

학 술 상



이 평 수
(육군사관학교 교수부 토목공학과 교수)

약력 ●

- 육군사관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졸업
- Asian Institute of Technology 졸업
- Univ. of Texas at Austin 졸업
- 한국전산구조공학회 부회장 역임
- 현 육군사관학교 교수부 토목공학과 교수

공적 ●

비람직한 도로망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 힘을 받는 다중극면구조의 해석에 관한 연구 및

다수의 우수 논문을 발표하여 구조공학 학술 발전에 기여하고 본 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여 학회 발전에 이바지하였음.

논문상

기술상



이 두 화
(삼보기술단 대표이사)

약력

- 한양대학교 토목공학과, 동대학원 졸업
- 현 삼보기술단 대표이사
- 한국도로공사 우수설계용역업체 표창
- 토목의 날 건설교통부장관 표창 등

공적

부산지하철 1호선 토목 실시설계, 올림픽대교 기본 및 실시설계 등 20여년간 국내 주요 토목설계 용역수행에 참여함으로써 국가기간 산업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으며 특히 엔지니어로서 우수한 기술개발을 도모하여 NATM 공법의 국내 도입 보편화, 특수 가설 공법교량 대중화(이동식거푸집공법, 세그멘탈공법 및 사장교 형식), 신기술 신공법의 개발 및 우수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하여 국내 토목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음.



한 상 을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약력

-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 동대학원 졸업
- 일본 교토대학 건축공학과 졸업
- 일본 교토대학 방재연구소 연구원, 명진 기술연구소 연구소장 역임
- 한국전산구조공학회 논문편집위원회 부위원장 역임
- 현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한국전산구조공학회 기술교육 담당이사

공적

대공간 구조물의 안정문제를 비롯한 구조적 거동특성을 규명하고, 특히 막 및 케이블 구조물의 형태 탐색 및 해석을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다수의 우수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우리나라 전산구조공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음.

논문상



이 재 영
(전북대학교 농공학과 교수)

약력

- 서울대학교 농공학과, 동대학원 졸업

·미국 Cornell Univ. 졸업
·현 전북대학교 농공학과 교수

공적 ●

1987년부터 현재까지 전후처리, 해석 및 교육적인 기능이 종합된 상업용 유한요소해석 시스템 IntuitiveFEM을 개발하고, 순환적 분할에 의한 유한요소망 자동생성 알고리즘 등을 비롯한 다수의 우수 논문을 발표하여 구조공학 학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음.

수상소감



이 리 형

먼저 작년 4월에 회장직을 이임한 후 오랜만에 학회지를 통해 회원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회상을 수상하게끔 기회를 주신 조효남 회장님을 위시한 학회 간부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상은 결코 저 혼자만의 업적이라기 보다는 그간 회원 여러분께서 학회 발전을 위해 애를 써 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덕분이라고 보며, 지금의 수상도 모두 여러분 은덕이라고 봅니다.

우리 학회가 탄생된 지 벌써 1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탄생 초기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이 있었습니다만, 돌이켜보면 그 중에서도 학회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와 학회 10년사 발간 등이 기억에 남는데 자료 수집이나 정리가 지극히 어려운 실정이었음에도 같이 밤을 새우며 일했던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간 우리 학회는 토목, 건축, 조선, 기계, 항공 등 여러 공학의 핵심적인 분야인 구조공학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구조공학의 발전 없이는 제 공학 분야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음을 두말할 나위 없는 사실입니다. 재반공학 분야의 기초가 되는 학문으로서 그 역할은 지금과 같이 연구개발 분야에 큰 어려움이 닥치고 있는 시기에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학회가 더욱 발전하여 내실있는 학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전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저도 최선을 다해 학회의 발전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학회상 수상을 감사드리며 전국에 계신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 평 수

학회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전산구조공학회 학술상 수상자로 결정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일순간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저보다도 더 훌륭하게 학술활동을 해온 회원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학회장님께 전화를 걸어 저로 예정된 학술상 수상자 결정을 보류하고, 학술활동이 왕성한 젊고 유능한 회원으로 교체해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하였으나만 겸손의 변이라면서 학회의 의견도 존중해 달라는 학회장님의 간곡한 말씀에 더 이상 사양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 싶어 외람됩니다만 흔쾌히 수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학회는 1988년 창립 이래 오늘날까지 전산구조공학 분야에서 수많은 학술활동을 통하여 학문발전에 기여해 왔고 국내·외의 학술교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기술혁신과 회원자신들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창립취지에 부응하여 꾸준히 노

력하여, 학회는 질적 및 양적인 면 모두에서 눈부신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회고해 보면 제가 초대편집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초창기엔 학회지에 수록할 기사와 논문편수가 적어, 학회지 백이 삼십 페이지를 채우기가 그렇게 어려워 애태웠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십여년만인 지금, 그 분량이 세 배이상으로 증가되었고 수준높은 논문들이 쇄도하여 학회지와 논문집을 분리 발간하기에 이르렀고, 정기적인 학술발표회를 비롯하여 십 수차에 걸친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학술활동을 성공적으로 해왔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학회에서 학술상을 수상하게 되었음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는 본인의 그간의 학술업적에 대한 상이라기 보다는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학술활동을 하라는 뜻으로 알고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여 학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학회장님과 학회상 심사위원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전산구조공학회 여러 회원님들의 발전과 진승을 기원합니다.



이 두 화

우선 학회의 기술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학회의 회장님과 위원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회로부터 기술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고보니, 1980년도 당시 3평 남짓되는 전산실에서 편칭카드(OMR) 오타문제로 여사원과 실랑이하던 전산실장 시절의 옛 기억이 머리를 스칩니다. 향후 전산구조공학과 토목기술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산구조공학분야는 실무적으로는 198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된 이후 불과 10여년 만에 거의 모든 구조기술자가 연구개발, 설계에 익숙하게 활용하고 있는 분야로 토

목 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복잡한 구조거동을 쉽게 파악하여 가상 현실화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제적이며 우수한 설계를 도모함은 물론 설계의 표준화, 최적화 및 설계성과를 통합, 운용관리할 수 있는 전산운용 체계방안에 대한 연구까지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산구조공학을 바탕으로 한 전문화된 여러 S/W(Soft Ware)의 개발, 보급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분야로써 전산구조공학을 연구하는 우리 모두의 주요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는 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설계전문 S/W개발 및 건설신기술·신공법 개발에 최선을 다하도록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으며, 학계의 도움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선 산·학 합동연구 지원을 통하여 토목기술 발전에 작은 힘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산구조분야의 발전과 실무 기술자의 선진기술 배양을 위해 힘써 주시는 학회의 노력에 기술자의 한 사람으로써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며, 끝으로 다시한 번 금번 수상에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수상소감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한국전산구조공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 상을

우선 11년의 짧은 연륜에도 불구하고 구조물의 해석에 관한 새로운 알고리즘의 개발과 보급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타 학회에 비하여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역대 회장님과 임원진 그리고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본인이 가장 애정을 갖고 있는 전산구조공학회의 논문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



이 재 영

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1980년 본 학회의 2대 회장이셨던 권택진 교수님의 지도로 대학원을 시작한 이래 1993년 유학생학을 마감할 때까지 그리고 귀국하여 인하대학에 몸담아 생활했던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양한 대공간구조 시스템의 해석기법에 대하여 연구를 계속하여 왔지만 항상 미진하고 많이 부족하다는 마음뿐이었고, 특히 최근 지어지는 월드컵 경기장, 영종도 신공항 그리고 고속철도 역사 등이 모두 외국의 기술진에 의해 설계가 진행되는 것을 보며 이 분야의 전공자로서 자괴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의 수상은 본인으로 하여금 보다 큰 사명감 및 책임감을 갖고 후학의 지도와 연구에 몰두하라는 격려와 채찍으로 받아드리며, 대공간구조 분야의 다음의 테마에 관하여 연구를 지속할까 합니다.

1. 미래의 대공간구조 시스템으로 각광받고 있는 막구조물의 형상해석 알고리즘 및 패터닝 기법 개발
2. 케이블 트러스 복합구조의 안정화 이행과정 해석
3. 인장구조물의 동적해석 기법 개발
4. 래티스 돔 구조물의 탄소성 해석 및 동적 불안정해석 기법 개발
5. 대공간 구조물의 최적화문제
6. 미래 초대공간구조물의 시스템 및 시공기법 개발

끝으로 본인을 믿고 연구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구조해석연구실의 대학원생 여러분과 본인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항상 격려와 도움을 주시는 건축공학과 동료 교수 여러분께 지면을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전산구조공학회 논문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부족한 저를 선정해주신 회장단과 위원회의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어서 저는 최근 몇 년 동안 개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유한요소해석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몰두하면서 학회활동과 논문발표를 등한히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 논문 컴플렉스 마저 갖고 있던 차에 논문상을 받고 보니, 송구스러움을 느끼면서 제자신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11년전 학회 창립의 반가운 소식을 듣고, 창립회원으로 가입하면서 기대와 희망으로 가슴이 부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전산구조"라는 명칭부터 저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있던 분야와 꼭 맞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25년 전 해외연수과정에서 "finite element method"라는 새로운 용어를 처음 들었고, 그 뒤 귀국한 다음에 비로소 우리말로써 "유한요소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유한요소법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통해서 깊은 감명을 받고, 이 분야를 공부하고 싶은 욕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대학원에 입학하였으며, 직장에서는 자청하여 전산담당부서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원래의 전문분야인 수리공학을 포기하고 전공을 구조쪽으로 정한 것도 유한요소법을 공부하려는 목표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연을 맺은 유한요소법은 이제 제 생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교육과 연구 뿐만 아니라 사회 활동까지 유한요소법이라는 단 하나의 밑천으로 꾸려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현재 개발하고 있는 유한요소해석 소프트웨어 intuitiveFEM은 저의 가장 큰 낙이며, 꿈이기도 합니다.

이런 저에게 전산구조공학회는 남달리 큰 힘이 되어 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학회를 통해서 유한 요소법을 연구하는 많은 회원들을 알게 되고, 그분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으며, 때로는 격려와 자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전산구

조공학회에서 저의 학술활동은 미미했습니다. 그런 데도 이렇게 논문상을 받고 보니, 과분하다는 느낌 뿐입니다. 학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좀더 분발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인]